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장영현 전도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골로새서 2:6-7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헌신과 나눔	봉 헌 / 박진성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이 땅의 황무함을 (부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최내권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23:15-22
이스라엘의 결기, 오순절

오늘의 찬양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와는 광대 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함지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일드려 칭하세, 우리 주님께~**

**(반복)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은 땅과 하늘 위에 계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상치 않은 문제들과 좌절. 그저 그렇게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뎠던 나의 영성. 이 찬양의 노랫말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자.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삶의 갈림길에서 어쩔 줄 모를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매일 삶으로 선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내 신앙의 처음. 주님을 처음 알고 감격하고 기뻐했을 때의 사랑을 회복하고 삶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찬 주간의 기도

"매일 분주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기가 여사입니다, 수시로 고통과 고민이 누릅니다, 그래서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점점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큰 은사를 받은 자는
“이것이 나의 큰 은사이다.”
“이것이 나의 큰 은사이다.”
“이것이 나의 큰 은사이다.”
“이것이 나의 큰 은사이다.”

찬양선서서 3:15절

교회와사역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망...

아버지께 창피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1. 예배 준비

예배 준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받으신다. 나의 삶과 분리된 예배는 있을 수 없다. 내가 없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 예배보다 삶이 더 중요하고,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내용을 바꾸는 시간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나의 삶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각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는 삶에 매몰된 나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준비 없는 예배

삶의 문제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도 문제가 주는 마음만 가지고 예배에 나아간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루며 살았고, 삶을 향한 주시는 뜻이 있었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 예배는 준비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누구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잡웃 차림으로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준비되어야 만날 수 있다. 예배가 방해물 받는 것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방해한다. 그것은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신앙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하면 방해를 분별하고 제압할 수 있다.

3. 죄, 예배에 대한 태도

사람은 죄를 짓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지, 어떻게 죄와 싸울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순종해야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용서받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은혜(롬 3:24)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죄가 용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해되면 감추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루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해 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누군가 죄에 대해 회개를 촉구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로 이해되면 당연히 적대적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가 사라지고, 사람들을 향해 나의 정당성으로 맺은 관계형성 시도만이 남게 된다. 어느 곳에도 진실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 보아야 한다. 예배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용서 받은 기쁨을 노래하며, 용서해주는 예수님과 용서받은 나 자신이 화목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4. 예배를 잘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각성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각성이 삶의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할 것이다.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화내면서 방법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예배를 잘 드렸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삶의 문제를 정의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길, 방법을 주신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나의 평판이 떨어질까 두려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용서를 받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다름을 받고 있다면 언제나 진실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나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구원의 기쁨과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 김길 목사, 『제자도』중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끝까지 충성에 동성한 열매를 맺는 섬김의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선교사역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주일성경공부가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3. 오늘 오후 단체로 Botanic Garden에 가을 단풍을 즐기러 갑니다. 여유와 안식의 시간을 누립니다.
4.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간구합니다.
5. 유치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교육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홍렬 목사 가정은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의 교육 및 적응, 신장이식 및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와 양육 / 교제와 나눔 / 치유와 회복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 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치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 배 섬 김 이

주일예배기도	10/27	11/3	11/10	11/17
	장영현전도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박진성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1/1	11/8	11/15	11/22
	최내권집사	오정은집사	구 민집사	최선운집사
주일헌금위원	10/27	11/3	11/10	11/17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10월	11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여호수아의 고별사** / 여호수아 23:7-8, 24:44-18

여호수아는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였다. 하나님을 인도하셨고 주관하셨다고 고백했다. 굳게 붙잡고 순종하던 말씀을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결단하게 만들었다. 긴 여운을 남기는 그의 고별사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전체 인생에 그대로 담겨 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기억될까? 긴 여운을 남기는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자.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마지막 모습을 이룬다. 지금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서는 마지막 모습을 꿈꾸며,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란? / 골로새서 2:6-7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의 의무는?

첫째, 뿌리를 내리며,

둘째, 세움을 받으며,

셋째, 믿음에 굳게 서,

넷째, 감사가 넘치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란? / 골로새서 2:6-7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높이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뼈에 새기겠다는 각오로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뿌리 내리는 것을 우리의 내적 성장, 영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세움을 입는 것은 외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워라"라고 하지 않고 세움을 입으라고 수동태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때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셋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튼튼한 나무라고 해서 풍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세상 학문과 속임수가 판을 쳐도, 이단 사상들이 유혹해도 넘어 가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넷째,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사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서 가득 차서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주변 환경에 상관 없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 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작은 예수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잠 못 들 때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격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October 27,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결실의 달
선교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노아 질수국
표알기 힘든
나은 자의 하나님